

②

개연성 蓋然性 probability

이 단어를 어디에서 보았나요?

교과서 수능특강/수능완성 모의고사 수능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반의어] 필연성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기 본] 어떤 현상의 영향으로 다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성질

[규 림] 호응. (?) 뜻 풀이를 봐도 뭔가 애매하고 짹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읽을수록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왜 애매하게 말하는 거야!!!’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는 세트**로 묶어 기억해주세요!

사회·문화 현상인 ‘결혼’을 생각해 볼까요? 소개팅을 많이 본 남성은 소개팅을 많이 보지 않은 남성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10명 중 7명은 결혼을 하더라도(70%), 3명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게 된다면(30%) ...

소개팅의 영향으로 결혼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긴 하니, 우리는 소개팅을 하는 사람을 보면 결혼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소개팅 했으니 백퍼센트 결혼한다. 무조건.”이라고 확신하거나 단정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억할래요.

③

필연성 必然性 necessity

이 단어를 어디에서 보았나요?

교과서 수능특강/수능완성 모의고사 수능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나 성질
2. 법칙, 규범 따위에 불가피하게 제약받고 있는 성질. 일정한 조건에서는 다르게 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물 현상의 연관과 그런 특성을 이룸.

[반의어] 개연성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기 본] 특정 원인에 따라 특정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성질

[규 림] 개연성과 다르게 화끈한 풀이가 아주 마음에 드네용. ^^ 확실하고!! 예외 없어!!! <- 요런 느낌을 잡아 보면 좋을 듯해요.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는 세트로 묶어 기억해두세요! 자연 현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감성에 젖은 새벽 3시 .. ☆ 발라드를 듣다가 눈물 뚝뚝 흘리던 규비는 ‘내일은 아침이 안 왔음 조케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성에 젖은 사람들 931103명이 모여 “아침 오지마!!!!”라 소리 지르고 싹싹 빌어보아도, 결국 밤이 가면 해가 뜨고 아침이 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과학적 사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해가 뜨는 사실은 지구의 자전이라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됩니다. 이 자연 현상은 필연적인 것으로, 예외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기억할래요.

④

유기체 有機體 an organism

이 단어를 어디에서 보았나요?

- 교과서 수능특강/수능완성 모의고사 수능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
2.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기 본] 사회 유기체설 |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여 사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심장, 폐, 뇌 등과 같이 유기체(인간이나 동물로 생각하면 쉬워요.)의 각 부위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 의존하면서 유기체의 생존에 기여하듯이 사회 또한 각 부분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한다고 본다.

- [심 화] 1. 유기체의 항상성은 사회의 조화와 균형에 대응
2. 유기체의 질병은 사회 문제에 대응
3. 유기체의 진화는 사회 변동에 대응

[규 림] **‘사회 유기체’는 기능론이 정말정말정말x931103 좋아하는 단어예요!** 생소한 단어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유기체인 인간을 통해 기능론의 사회 유기체설을 정리하자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볼게요. 앞을 잘 보게 해 주는 ‘두 눈’은 사회에서 교사와 학교, 교육 제도를 다루는 ‘교육’에 해당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입’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얘기하는 ‘정치’에 해당하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폐’는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눈과 입, 폐 ... 는 하나의 인간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생명 유기체인 인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죠? 마찬가지로, 교육과 정치, 의학 ... 은 **하나의 사회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사회 유기체의 유지와 존속을 도와요.**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병리론과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으니 꼭 꼼꼼히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나는 이렇게 기억할래요.

⑤

사회적 희소 가치

이 단어를 어디에서 보았나요?

교과서 수능특강/수능완성 모의고사 수능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 회 적: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희 소: 매우 드물고 적음.

가 치: ①번 참고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기 본] 부, 명예, 권력처럼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만 모두를 충족시켜 줄 만큼 많지 않은 사회적 자원을 말함.

기능론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분배된다고 봄.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강압에 의해'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분배된다고 봄.

[규 림] 여러분은 사회적 희소 가치가 어떻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나요? 부와 명예, 권력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을까요?

기능론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의한 바를 바탕으로 희소 가치가 분배된다고 본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두에게 똑같은 몫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살펴보았듯, 사회 유기체 속에서 페나 심장, 뇌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엘리트'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몫을, 손톱이나 발톱처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군에게는 더 적은 몫을 분배하는 것이지요.

이는 기능론이 사회를 위해 기울이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갈등론에서는 이 사회적 희소 가치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계급이 구분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지배 계급은 자신의 사회적 희소 가치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사회 제도를 유리하게 만들어 피지배 계급에게 강요하며, 피지배 계급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해요.

나는 이렇게 기억할래요.

⑥

상징 象徴 symbol

이 단어를 어디에서 보았나요?

교과서 수능특강/수능완성 모의고사 수능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 기호, 물건 따위.
2.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또는 그 사물.

예를 들면,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것 따위가 있음.

[유사어] 심벌, 마크, 기호, 표징, 표상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쓰어요.

[기 본]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물이나 기호로서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되어 의미 전달의 수단이 됨.

예를 들어,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 ♀는 남자를 / ♂는 여자를 나타내는 상징에 해당됨.

[규 림]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서는 개인이 사회 내의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아요.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과 갈등론과 달리,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사고와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이렇게 기억할래요.